땀냄새 제거제 DBP · DEHP 함유

여성환경연대, Deodorant 6종에서 … 환경호르몬으로 생식독성 유발

여름철 땀 냄새를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들기 위해 겨드랑이 등에 바르는 데오도란트(Deodorant)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인 Phthalate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환경연대는 7월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5개 메이커의 데오도란트 제품 6종(고체 2종에 액체 4종)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DBP(Dibutyl Phthalate)는 액체제품에서 리터당 최고 6.98㎎, 고체제품에서는 ㎏당 최고 1.67㎎이 검출됐다. 또 DEHP(Diethylhexyl Phthalate)는 액체제품에서 리터당 최고 34.84㎎, 고체제품에서는 ㎏당 최고 1.52㎎이 나왔다.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알려진 DEP(Diethyl Phthalate)도 U사의 고체제품에서 ㎏당 730㎎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래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화장품에서 여러 성분이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이다.

특히, DBP와 DEHP는 자궁을 손상하고 정자를 손상하는 등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동물실험에서 암을 일으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출된 DBP, DEHP, DEP 등 3가지 성분 가운데 DBP와 DEHP는 2005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이 화장품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장난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데오도란트는 매일 반복해 사용하고 바르는 부위가 땀샘이 많고 습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피부조직에 비해 유해물질이 잘 흡수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4월에도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유통되는 향수·헤어무스·모발염색제 등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던 메이커 가운데 일부는 자사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으나, 데오도란트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곳 가운데는 2003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U, A사 등 2곳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기업들은 "원료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플래스틱제품 용기에서 녹아들었거나 (검출결과가) 실험오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일단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데오도란트의 시장규모는 400억원에 이르고, 국내 사용인구는 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화학저널 2005/08/2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